

장흥댐 '강태공' 벌금형

14명에 30만~50만원 부과

상수원보호구역인 장흥댐에서 물고기를 잡은 '강태공'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장흥댐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된 21명 중 14명에게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렸을 적부터 낚시를 해온 탕 인근 주민 7명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줄 몰랐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장흥댐에서 낚시를 하다 2차례 적발된 이모(60·화순군 화순읍)씨는 벌금 50만원을 부과받았고, 나머지 13명은 모두 3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이씨 등은 지난 6~7월 장흥댐에서 붕어 등을 잡다가 장흥군에 적발돼 수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당했다.

현행 수도법(제61조 등)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낚시 등 불법 어로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에는 주암댐 등 76곳(232.82km)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장흥댐은 지난해 4월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정홍=김영기기자 kykim@kwangju.co.kr

"대학 박물관 문화재 발굴 투명성 결여"

총리실, 실태 조사 나서

전남대 등 대학 박물관이 진행하는 문화재 발굴과정에 '투명성 결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무총리실이 실태파악에 나섰다.

13일 전남대학교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전남대와 목포대 등 전국 8개 대학 박물관 소속 교수·직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집행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심의관실은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이들 대학 박물관이 실시한 학술용역·지표조사 등에 대한 규모, 용역비 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노숙자 방화치사 30대 구속

광주 남부경찰은 13일 강제퇴소 조치 등에 양심을 품고 선교원 내 노숙자 숙소에 불을 질러 7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김모(39)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송하동 '새희망 복지 선교원' 내 쉼터 B동 이불 보자기에ライター로 불을 붙여 노숙자 최모(48)씨 등 4명을 숨지게 하고 김모(48)씨 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건져보아야 껌데기만..." 한숨의 바다

고수온에 절반 이상 폐사 수심억 피해

400 漁家 인건비도 못건져 채취 포기

"20년 넘게 굴 양식을 했지만 이렇게 지독한 집단 폐사는 처음입니다. 채취해봐야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는 데 누가 싹트 나서겠습니까?"

13일 오후 1시 국내 대표적인 굴 양식장 중 하나인 여수 가막만 앞바다. 올해 이곳 11ha의 굴 양식장에 1억원

을 들여 종묘를 설치한 문영남(50·돌산읍 금봉리)씨는 '굴 피해 합동조사단'을 만나자마자 하소연을 쏟아냈다. 문씨의 양식장에서는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100m 길이의 수하식(垂下式) 양식 줄에 알이 꽂 들어찬 굴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굴 따는 채취기가

온 종일 평을 내며 돌아갔으나, 지금은 정작만이 흐르고 있다. 지난 9월 초부터 굴 집단폐사가 발생, 수확을 업무조차 못 내고 있는 것이다. 채취를 해도 입을 벌린 채 바닷물만 머금은 굴 껌데기만 쏟아져 나올 뿐이다.

굴 양식장은 1ha당 20개의 줄이 설치돼 있으며, 한 줄에서 굴을 채취하는데 드는 비용은 성인 8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모두 60여만원. 올해의 경우 굴이 대부분 폐사했거나 알이 들어차지 않아 30여만원 벌기도 힘들다. 수확을 해도 되려 30만원이 손해인 셈

이다. 예년에는 한 줄당 150만~2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인근의 다른 굴 양식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모두 일손을 놓은 채 배를 양식장에 매어 놓고 삼삼오오 모여 한숨과 탄식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었다. 가막만 외에 여수지역 3대 굴 양식장으로 꼽히는 장수만·돌산 동바다에서도 집단폐사가 발생하고 있다.

수산당국은 예상 수확량의 50%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굴 폐사를 신고한 어민만도 367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수심억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수시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굴 수확 여수지소, 남해수산연구소 등과 합동으로 여수지역 3대 굴 양식장을 돌며 피해 합동 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번 굴 집단 폐사가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2~3도 높은데다 강수량이 적어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수시는 집단 폐사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피해 복구비 지원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어민들은 그러나 "수산당국에서는 피해 금액의 50%를 보상하지만, 보상이 종래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성장 굴 출하를 앞둔 어민들의 실제 피해는 2~3배 많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한편 여수지역 연안에서는 400여어가 매년 5천800t의 굴을 생산, 연평균 16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13일 여수 가막만 굴 양식장을 찾은 '굴 피해 합동조사단'이 양식 줄에 매달린 굴을 끌어올려 보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노인들 울린 '타짜'

농촌 돌며 3,000만원 가로채

순천경찰, 4명 사기혐의 구속

패를 돌리는 역은 '타짜' 이씨가 맡았다. 이씨는 '기술'을 발휘해 타씨가 고른 패가 타씨에게 가도록 했다. 타씨가 '똥상피'에 돈을 걸면 어김없이 '똥상피' 패가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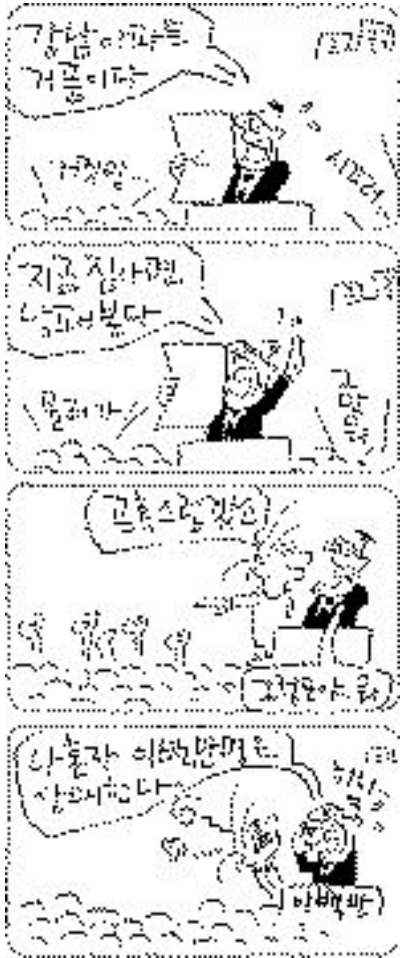
타씨는 계속 이겨 1천800만원을 땀다. 민씨는 울상을 지으며 "돈을 줄 테

니 가지고 있는 현금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돈을 따더라도 자신이 도박 자금으로 준비한 돈 이상은 가져갈 수 없다는 '도박계의 불문율'을 들고 나온 것이다.

현금이 10만원 밖에 없었던 타씨는 인근 농협에서 1천800만원을 인출한

뒤 이씨 일행의 차로 되돌아갔다. 이때 민씨는 차 밖에서 담배를 태우며 한숨을 짓고 있었다. 이씨 등은 타씨에게 "개랑이라도 좀 건네주라"고 했고, 타씨는 돈을 주려고 밖으로 나갔다. 은행에서 인출한 돈은 차에 놓아둔 채였다. 타씨가 내리는 순간 '타짜' 일행은 차에 시동을 걸고 달아났다. 민씨도 급히 달려 도망쳤다.

노인들을 울린 '타짜' 일당은 순천경찰에 의해 한 달여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3명에 걸쳐 3천만원을 가로챈 것을 밝혀내고 13일 4명 모두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법정 변호사 및 중립특례법
 처리는 3.6% 최저단가
 무료상담 24시간 365일 24시간
 수원신도시, 파주
 062-367-9000

음주단속 피해 20분간 '광란의 질주'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하던 의경을 차로 치고 20여 분간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경찰에 들이.

○...13일 광주 동부경찰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힌 정모(29·경기도 용인시 신갈동)씨는 이날 새벽 1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제 2순환도로 두암 I.C 인근에서 06부66××호 겔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김모(21) 일경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김 일경을 친 뒤 달아난 것.

○...정씨는 인근에 있던 순찰차도 1대 들이받고 광주시 북구 풍향동으로 도주했는데, 풍향동 서방사거리 앞에서 신모(23)씨 등의 차 2대와 잇따라 사고를 낸 뒤 추격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고.

○...정씨는 음주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60%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담양에 있는 선배를 만나러 가다가 음주 단속이 두려워 도망쳤다"고 진술.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